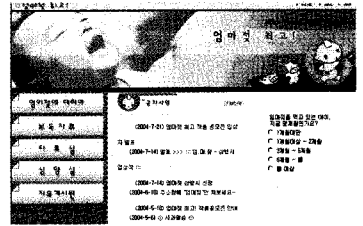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주세요!”

# 인터넷 설문 결과 발표

- 편집실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을 통해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엄마젓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장생활과 가슴 노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엄마젓 먹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0명(남 99명, 여 601명)중 88%가 엄마젓을 먹이겠다고 응답했으나 직장생활과 가슴 노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엄마젓 먹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젓 먹이기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2003년과 동일하게 직장생활(32%)이 부동의 1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슴 노출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부담된다는 이유가 21%로 2위를 차지해 여성의 가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엄마젓을 먹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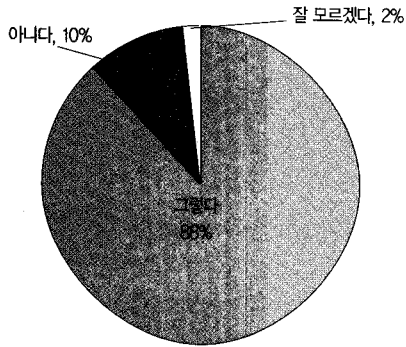
엄마젓을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는 2003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엄마가 69%로 높게 조사된데 반해 74%가 남편, 14%가 시부모 및 친정부모로 나타나 엄마젓을 먹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배려와 도움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편안하게 먹일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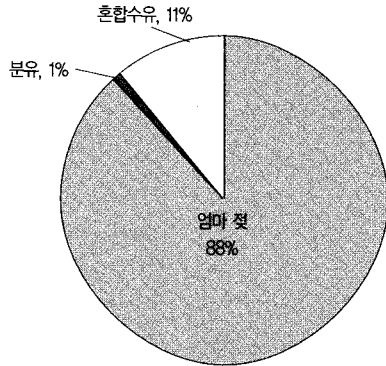
엄마젓 먹이기 증진을 위해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을 묻는 설문에는 39%가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실 확대, 22% 모자동실의 확대 등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나타나 언제 어디서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금 수유중인 아기 몇 개월인가요?’라는 질문에는 21%가 6개월에서 들, 18%가 돌 이상, 14%가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응답했다. 협회의 하반기 엄마젓 먹이기 캠페인은 엄마젓을 먹이는 모습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실 확대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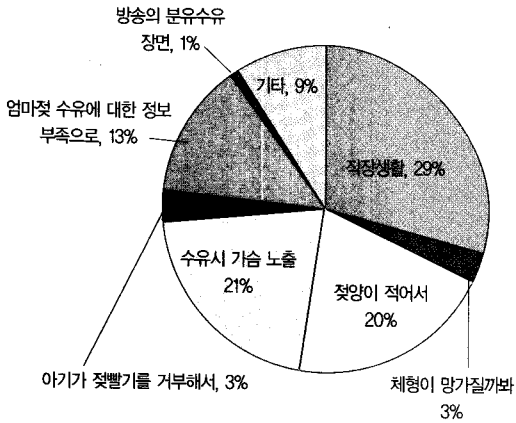
### 엄마젓을 먹고 자랐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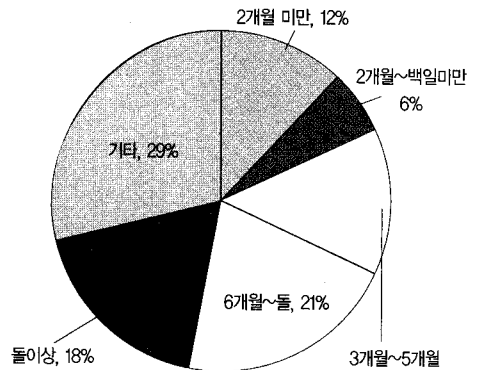
### 당신의 자녀는 무엇으로 키울 계획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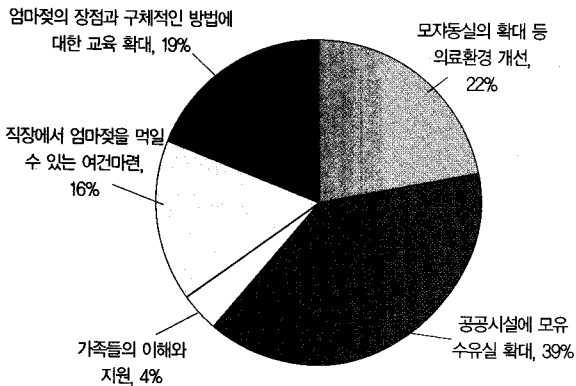
### 엄마젓 먹이기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지금 수유중인 아기 몇 개월인가요?



### 엄마젓 먹이기 중진을 위해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 엄마젓을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